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철도의 노력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생필품이 되었고,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한국철도는 국민의 막연한 불안을 안심으로 바꾸고, 모든 이용객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의 코로나 방역

모든 철도역을 매일 2회, 주요역은 6회 이상 철저히 소독하며, 이용객의 손이 자주 닿는 곳에 항균필름을 부착하여 간접 접촉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요 이동통로, 맞이방 및 승강장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종합안내소의 매표 창구에는 '투명인막이'를 설치하여 고객과 역직원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90개 역에 100여대의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총중환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열차 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열차가 차량기지에 입-출고할 때와 도착역에서 운행을 종료할 때마다 방역 및 소독을 진행하며, KTX는 일평균 4.5회, ITX-세마음과 무궁화호는 매일 2회 이상 집중 방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철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동참하며 공익적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차 좌석 배정 시 창측을 우선 배정하여 이용객 간 인접좌석 이용을 최소화하고, 출퇴근 시간에 운영하는 자유석 지정 객실을 전면 확대하였으며, 주요 10개역 주 출입구 승차고객과 도착고객 동선을 분리하였습니다. 유흥 시설 밀집지역 집단감염 예방 동참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운행하는 KTX와 ITX-청춘 일부 열차를 감축하였고, 심야 전동열차 운행시간을 1시간 단축 하였습니다. 3월 28일부터 해외입국자 전용 KTX간과 공항버스를 운행하며, 한국철도 인재개발원 속사를 해외입국자 임시거주시설로 제공하는 등 해외

입국자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시지출퇴근제 및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필기 시험을 6월까지 2차례 조정하는 등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한국철도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은 국제적인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UN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와 OSJD(국제철도협력기구)가 공동 주관한 화상세미나에서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이밖에도 역사 내 입점매장의 임대료 및 영업료를 감면하고 여행사의 판매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피해 저완에 앞장서며 국가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항공, 버스 등 타 교통수단은 코 은행감축과 중단을 결정하고 있지만, 한국철도는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모든 열차와 광역철도 운행 감축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국민과 만나는 한국철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순간까지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철도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국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설치(서울역)



출입구 동선 분리(용산역)



마스크착용 캠페인

UN ESCAP-OSJD 웨비나 노하우 공유

한국철도의 코로나19 대응 노력

철저한 방역 체계 구축

 역사 소독 매일 2회 이상 <small>(주요역 매일 6회)</small>	 열차 방역 KTX 열평균 4.5 회 <small>(KTX-세라올과 무궁화호 매일 2회 이상)</small>	 열화상 카메라 설치 주요 90개 역 100개	 역사 내 손 소독제 비치 항공필름 부착	 출입구 승차고객 도착고객 동선 분리
---	---	---	--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출퇴근시간 자유역 지정 객실 확대	 철도인재개발원, 해외입국자 임시거주시설 제공	 신입사원 채용시험 6월로 연기
--	--	--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

 역사 매점 임대료 및 구내 렌탈료 20% 감면	 한국철도노동조합 노사 공동으로 대구시에 2억 원 기부
--	--

의료인들의 고마운 발걸음, 한국철도가 응원합니다

한국철도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코로나19 의료지원을 위해 이동하는 의료인들에게 모든 종류의 열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봉사자 철도 무임 수송은 2월 2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2020년 상반기까지, 총 3,355명의 의료진이 열차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한국철도는 의료인들이 이동시간 동안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일반실과 특실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철도역 주차장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의료인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봉사자가 역 창구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모든 열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절차를 최소화하고, 이미 운임을 지불한 경우 1년 안에 전액 환불조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 코로나19 의료봉사자를 응원하는 내용을 안내문으로 띄우고, 역에 해당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의료봉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였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봉사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조금씩 건강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철도는 열차 무료 지원을 이어가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에서 봉사하는 의료인들의 고마운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의료봉사자 지원

무료 열차

2020년 상반기까지 의료봉사자 3,355명 이용



KTX 이용객 **2,906명**



일반열차 이용객 **449명**

기타 지원

P
철도역 주차장 무료 지원

Q
역 내 의료봉사자 응원 문구 부착

R
이용절차 최소화